

노인가정의 생활관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지 영 숙

목 차

- I.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정
 - 1.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 2. 노년기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 3. 노인부양의식과 노인가정
 - II. 노인가정의 바람직한 삶?
 - 생활관리의 철학적 관점에서 -
 - 1. 의미있는 삶
 - 2. 저소유(低所有)의 삶
 - 3. 사회관계와 자립적 생활적응
- 참고문헌

I.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정

1.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우리 사회에서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절대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만으로 이루어지는 노인가구의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표 1>에서 보면 1996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약 277만명)를 나타내고 있지만, 눈앞에 다가온 2000년대에는 7.1%(약 337만명)로 늘어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현재 40세~45세)가 65세로 진입하는 2020년경에는 13.2%(약 690만명)가 될 것이라고 한다.

< 표 1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추이

(단위 : 천명)

연도별 구분	1960	1970	1980	1990	1996	2000	2020
전인구(천명)	25,012	32,241	38,124	42,699	45,545	47,274	52,358
65세이상 노인 인구(%)	726 (2.9)	991 (3.4)	1,456 (3.8)	2,114 (5.0)	2,775 (6.1)	3,370 (7.1)	6,899 (13.2)
노령화지수(%)	7.7	7.8	11.4	18.2	26.7	29.6	69.1

자료 : 통계청(1996) : 장래인구추계 p50).

1960~1990년은 보건복지부(1996), 노인복지사업 지침, P7

1996~2020년은 통계청(1996,12), 장래인구추계, p162

노령화지수는 김태현(1994), 노년학, p9

또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1985, 1994)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1985년도에 20.5%에서 1994년도에는 38.5%로 나타나고 있고(표 2), 앞으로 세대간 동거의식의 변화와 결부하여 생각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더욱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표 2>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세대구성형태

(단위 : %)

세대구성형태	비율
노인독신가구	14.9
노인부부가구	23.6
자녀동거가구	56.2
(노인+기혼자녀)	(35.7)
(노인+기혼·미혼자녀)	(4.0)
(노인+미혼자녀)	(16.5)
기타가구	5.2
(노인+부모)	(1.2)
(노인+친척)*	(3.3)
(노인+비혈연)**	(0.7)
계	100.0

- * 노인+(손자녀·중손자녀·형제자매와 배우자)+기타인.
노인+부모+(손자녀·중손자녀·형제자매와 배우자)+기타인을 포함함
- ** 노인+ (배우자·아들·딸·손자녀·중손자녀·형제자매)를 제외한 친척 또는 비혈연을 말함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P34.

2. 노년기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평균수명은 계속 높아져서 1960년에 남자 51.1세, 여자 53.7세에서 1995년에는 남자 69.6세, 여자 77.4세를 나타내고, 2000년에는 평균 74.9세, 2010년에는 77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남녀간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7세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1996),장래인구추계)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연장은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출가 후 노부부 혹은 노인 혼자서 살아가는 생애 후반부 시기가 전보다 10년 이상 증가한 것이다. 즉, 1974년 이전에는 자녀 출가 후 노인들끼리만 살아가는 기간이 평균 15년 정도였지만 1997년에는 25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도 현재 노년기 가정들은 평균 15.5년은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그 뒤 9.5년은 여성노인이 혼자 사는 생활주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특히 여성노인의 생활이 더 착실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 노인부양의식과 노인가정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커다란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게 된 이유는 위와 같은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됨과 동시에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특히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쇠퇴하고 가족의식은 점차 개인주의화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제 부부중심의 핵가족 생활은 보편화되었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따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 희망율을 보면 1985년에 11.5%였던 것이 1994년에는 4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5, 1994).

또 전통적 장남위주의 부모부양 의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14세

이상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통계청 : 1992, 1996 한국의 사회지표), 노부모 부양을 장남이 져야 한다는 경우는 1979년 30.6%에서 1994년에는 19.6%로 줄었고, 이에 반해서 아들, 딸 모두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경우는 1979년 6.4%에서 1994년에는 56.3%로 증가하고 있다. 또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에서는 가족과 단절되고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노인에 관한 기사도 종종 접하게 되었다. 이 모두가 노인부양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규범이 부재하면서 노인부양은 이제 '부담'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적절한 사회적 여건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별거지향 및 부양 책임소재의 공동화는 노인기의 갈등이자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태현, 1999). 또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가율의 증가(특히 기혼여성의 비율 47.7% : 보건사회연구원, 1996)는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던(Miller 등, 1992 : Coward 등, 1992 재인용) 노인에 대한 가족내의 보호기능 내지 부양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실제로 보호를 담당할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표면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족이 노인부양의 주책임자, 전담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사회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을 노인기의 특성은 건강약화로 인한 신체능력의 감퇴와 의존성이고, 또 하나는 은퇴후의 경제적 약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손승영, 1993). 그 중에서도 현재 노인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다. 그리고 노화에 따른 개인의 건강상태는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건강하지 못한 취약상태가 연장되겠고, 그래서 의존성이 증대되는 문제는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 현재 노인 및 노인가정의 현주소라 하겠다.

이제 여기서 꼭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이 노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왔고, 또 앞으로 건강관리, 여가관리, 금전관리, 역할관리, 노동관리 등을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노인가정의 생활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시기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함이다.

흔히 노인가정 또는 노인이라고 하면 외롭고, 가난하고, 아프고, 의존적이고 무시되기 쉬운 것으로 묘사되어온 자책과 편견을 지양하고, 변화된 의식과 행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개인적 가치가 존중되는 의미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II. 노인가정의 바람직한 삶 ?

-생활관리의 철학적 관점에서-

노인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경제적 배경과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기에 노인에 대한 연령만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Breen(1960)에 의하면 노인은 생리적·육체적으로 변환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personality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재인용).

본고에서 노인가정은 위에서 개괄하였던 현실적 상황과 Breen의 개념을 감안하여 볼 때, 은퇴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가정으로서 노인이 단독가구를 이루고,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일차적 미래상(未來像)으로 상정(想定)하고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노년의 생활만족은 특히 현재의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이라는 단일 차원보다는 한 개인이 살아온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말하는 다차원적, 종단적 측면이 함께 포함된다고 하였다(최성재, 1986 : Robertson & Shoffner, 1989).

따라서 노인가정의 생활관리는 노인 개인과 가구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선에서 보다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이자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노인가정의 바람직한 생활관리를 위해서는 그의 출발이자 동기가 되는 가치관 및 가정철학(Philosophy of household management : 가정생활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거해야 하는 철학적 토대)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오늘날과 같은 생활 환경적 위기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1. 의미있는 삶

노인기에 수반하는 개인차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고 그래서 노년기를 만족해하는 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이, 새로운 도전으로 흥미로워하는 이, 더욱

활동적인 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 이, 등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화의 모델은 어떤 것일까? 자연적인 노화과정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숙한 자아감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스티븐 코비(1999)의 의미있는 삶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내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열수는 없지만 한가지만은 확실히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하는 법을 열려고 하고, 마침내 그 방법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하다는 점입니다.

-앨버트 슈바이처-

개인과 가정은 생애에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 4단계 즉, 생존의 단계, 안정의 단계, 성공의 단계, 의미의 단계를 거친다.

- 생존의 단계 - 생존요구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개인과 가족은 경제적 생존 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투쟁한다.
- 안정의 단계 - 개인과 가족이 생존에는 지장이 없고 급한 문제를 해결하며 생활은 안정되고 가정은 기댈만하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기쁨, 사랑, 평화는 없다.
- 성공의 단계 - 개인과 가족이 가치있는 목표(정신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를 성취하는 단계이다.
- 의미의 단계 - 가정을 뛰어 넘어 뜻깊은 일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정 뿐 아니라 다른 가정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공동체와 전체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위한 사회활동, 종교단체 등에 자기 에너지를 봉사한다. 이는 개인 구성원 뿐 아니라 가정 전체에 성취감을 안겨준다. 즉, 남아있는 잠재력과 유익함을 남에게 나누어주려 한다.

2. 저소유(低所有)의 삶

현대 사회에서 사람(노인)들은 보다 열심히 보다 많이 일하면서, 보다 많이 소유하

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기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며 살아왔다. 노인기의 욕구 또한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의(과거)생활철학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다운쉬프팅(Down shifting), 즉 다운쉬프터들은 자발적 검소(Voluntary Simplicity)와 적게 소유하는 것(Downsizing),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데는 그리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처럼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 친지, 이웃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는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큰 것의 소비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등... 생활철학을 바꾸어 변화된 삶의 양식에 적응하며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Down shifting에 이르는 과정은 순전히 개인과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천하는 방법도 수십, 수백 가지에 이를 것이며 보편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가정의 만족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모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사회관계와 자립적 생활적용

현대는 노인에게 있어서 수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서병숙, 1994). 그러나 21세기 노인가정, 노인문화의 패러다임은 달라져야 한다.

우선, 노년의 생활구조(시간, 공간, 인간관계)를 다원화(多元化)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중심적인 구조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생활행동이 가족(부부)과 축소된 공간에서 노인기에 늘어난 많은 시간들을 비활동적(노년의 신체특성상)인 생활방식으로 영위하려면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로 가족에게서 찾아왔다면 21세기 노인들은 삶의 의미와 심리적 만족을 가족외부에서도 찾아야할 것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생활의 개별화 추세는 자원이 부족한 노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만족을 얻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한경혜, 1996). 그러므로 가족 외부와의 단체활동, 부부활동, Club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새로운 역할과 위치, 인간관계를 형성하므로서 정서적, 심리적 만족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앞으로의 성공적인 노화의 이미지는 자녀나 가족역할에 중요성을 적게 부여하고 다양한 그룹활동, 여가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생활양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성공적인 노화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사회적 유리설과 사회적 활동설”이 논의되어 왔지만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관계의 적응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언젠가는 누구나 홀로 서야 하는 독립적 생활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관리와 연습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세대간의 관계가 중요해지는데, 종래의 경제적 의무와 의존에서 벗어나 정서적 유대가 연결고리가 되는 자발적 세대간의 유대와 접촉으로 전환될 때 만족도가 높다(조병은, 1990의 다수)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사회관계 확충, 자립적 생활적응과 세대간 정서유대라는 삼각구도의 균형과 적절성은 노년의 생활관리에 중요한 설계적 과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전통적 “효(孝)”개념의 본질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고 볼 때(최경숙, 1998) 봉양이나 시봉(侍奉)에 앞서는 공경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키워져야 한다는 것 또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두의 몫이다(慈).

결론적으로 노년의 개인과 가정은 그 어느 주기보다도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건강을 비롯하여 생활자원을 어떻게 준비하여 왔고, 자연적인 노화과정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하는가? 성공적인 노인가정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책임지는 자신의 삶을 위한 철학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성공적인 노년기를 관리하기 위한 문제인식이고,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은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선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상황판단으로 자신의 현주소를 찾고, 생활철학을 재정립하는 고민을 통해서, 노인으로서의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선택의 폭을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노년기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김태현(1999). 노후 생활 준비 교육 ; 토론회자료. 한국 가정생활 개선 진흥회.

서병숙(1994). 노인연구. 서울 : 교문사.

- 윤진(1996). 모든 일은 사람하기에 달렸다. 서울 : 학지사.
- 이기영·조영희 외(1998). 생활설계론. 서울 : 교문사.
- 이신숙(1999).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 임정빈·지영숙 외(1994). 가정관리학. 서울 : 학지사.
- 조은숙(1996). 노년기 성격적용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지영숙(1998). 현대가족생활설계론. 서울 : 학지사.
- 차용은·서병숙(1996). 유료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
회지14-4.
- 최경숙(1998). 모친의 효행과 자녀 효 교육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창간호.
- 한경혜(1996). 고령화시대와 삶의 질. 서울대 생활과학연구회,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 존 브란트(1996). 자연을 담은 큰 그릇 : 생활 속의 철학. 풀무원 3본.
- 스티븐 코비·김경섭 옮김(1998).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서울 : 김영사.
- 보건복지부(1996). 노인복지사업 지침 P7.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p5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5, 1994).